

# 현대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론과 강도

왕형우<sup>1</sup>, 김현주<sup>2\*</sup>

<sup>1</sup>칭다오이공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단국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학과 박사과정

<sup>2</sup>단국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학과, 부교수, 단국대학교 부설 융합디자인연구소장

## An Expression of the theory of 'Corps sans Organes' of Deleuze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Xin-yu Wang<sup>1</sup>, Hyun-Joo Kim<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Fashion Design, Qingdao University of Technology

Doctoral course, Fashion Merchandise Design, Dankook University;

<sup>2</sup>Associate Professor, Fashion Merchandise Design, Dankook University

요 약 후(後)구조주의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감각과 신체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들뢰즈의 신체 미학의 핵심 사상, 즉, 기관 없는 신체이론을 기초로 현대 패션과 그 신체와의 관계를 재해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없는 신체는 그 강도에 따라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와 '텅 빈 기관 없는 신체' 그리고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현대 패션은 착용 방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신체관계를 창조할 수 있고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텅 빈 기관 없는 신체 상태에서는 옷을 훼손함으로써 부정적인 의미의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를 만들 수 있다. 현대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론과 강도 분석을 통해, 신체와 의복의 상관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패션디자이너들의 창의적 표현의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기관 없는 신체, 들뢰즈, 신체 미학, 강도, 패션디자인

Abstract Gill Deleuze is a representative of poststructuralism philosophy who has reevaluated the senses and body. This research reinterprets modern fash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body based on the core idea of Deleuze's body aesthetics - Body without org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ith the influence of intensity, the body without organs will form three types of body: full body without organs, empty body without organs and cancerous body without organs. Second, modern fashion can create new physical relationships by changing the way of dressing, thus forming the full body without organs. Third, in the empty body without organs, people replace the torture of the body through the destruction of clothing; and the indiscriminate design under egalitarianism will create the cancerous body without organs which full of negative meaning. Through these results, we can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and clothing, and apply it to creative expression.

Key Words : Body without organs, Deleuze, Somesthetic, Intensity, Fashion design

\*Corresponding Author : Hyun-Joo Kim(hyunjookim@dankook.ac.kr)

Received October 6, 2020

Revised October 30,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0세기 중엽 이래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포스트 공업 사회를 이끌었고, 과학 분야에서는 퍼지 이론, 혼돈학(Chaos), 자기 조직화 현상(Self-organization phenomenon)을 포함한 자연계의 복잡한 문제들에 관한 연구가 일어나 세계적으로는 기술 본위의 이성주의(Rationalism)가 세계인들의 기본적인 인식 구조를 바꾸었다[1]. 이는 더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 세계의 다양한 불균형, 불안정, 무질서, 단절, 비연속 현상에 대한 관심과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고대의 이원론과 이성주의 인식론을 이끌던 플라톤(Platon, 약 B.C 427 - B.C 347)의 이성주의는 서양의 역사를 오랫동안 이끌었다. 이후 사람들은 전통적인 이성 원칙에서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비이성적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비이성주의(Irrationalism)는 점차 현대 서양 철학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체는 서양 철학 연구의 주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서양 예술사에서 지극히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신체미학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자와 그 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양 철학은 이성주의에서 비이성주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시작해 중세 기독교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과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 이르는 단계를 거쳤다. 철학의 내적 전환 과정에서 신체 문제에 대한 사색은 항상 서양 철학의 중요한 주제이며 서양 미학 연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신체-미학'은 철학과 미학의 사색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미학의 연구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학에서 기존의 철학적 사변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2].

이성주의 시기부터 신체는 경시의 대상이었고, 이 시대의 대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Socrates, 약 B.C469-B.C399)는 죽음은 신체의 죽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프랑스 근대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Renatus Cartesius, 1596-1650)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고 하며 정신적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체 자체는 중요시 하지 않았다. 이후에 칸트(Immanuel Kant, 독일의 철학자, 1724-1804)의 주체설이나, 헤겔(Hegel, 독일의 철학자, 1770-1831)이 주창한 '실체는 주체다'에서도 신체는 크게 중요시 되지 않았다. 19세기 중엽부터,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독일의 철학자, 1788-1860)와 니체(Nietzsche, Friedrich

Wilhelm, 독일 철학자, 1844-1900)는 현대 서양 철학의 비이성주의를 열었고, 신체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으며, 니체는 모든 것을 신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프랑스 철학자, 1926-1984)와 들뢰즈는 니체 사상의 계승자였고 푸코는 '생명의 권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신체가 어떻게 권력의 작동에 있는지 더 잘 보여주었고, 들뢰즈는 신체의 에너지에 관한 니체 사상을 물려받았다.

프랑스 후(後)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Louis Rene Deleuze, 1925-1995)는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의 주요 대표 중 하나로 그의 사상은 버거슨(Henri Bergson, 프랑스 철학자, 1859-1941),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독일 철학자, 1844-1900) 및 스펜노사(Baruch de Spinoza, 네덜란드 철학자, 1632-1677)의 영향을 받아 1960년대 말에 자신의 독립된 학설을 내세웠다. 들뢰즈의 철학적 사상은 바로 당대 서양 철학의 비이성적인 전향 과정에서 농익은 것으로 오늘날 세계의 복잡성, 다원성, 이질성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담고 있다. 이 중 '기관 없는 신체'를 핵심으로 하는 신체미학 사상은 들뢰즈 철학의 비이성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들뢰즈의 미학에서의 '기관 없는 신체'는 생성되고, 유동적이며, 멈추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더 이상 기관/유기체의 속박에 의존하지 않고 전통 관념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운 무기체의 신체가 된다. 들뢰즈의 비이성주의적인 탐구는 현대 조형예술 분야에 침투하였다. 비이성적인 사고는 전통적인 미학에 대한 전복으로, 상규에 반한 예술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시각과 느낌을 자극하고, 형태상의 복잡한 변화와 창조적 시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들뢰즈는 '기관 없는 신체'이라는 개념으로 철학과 예술, 정치와 문화, 사고방식과 신체의 존재 등을 연관시켜 현대 건축, 경관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조형예술의 복잡성을 전환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현대 패션계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은 전통적으로 이상적으로 여겨오던 비율, 인체, 조화 등 전통적인 미학의 기본 요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해체, 변형, 재구성 등의 디자인 기법을 통해 아방가르드한(Avant-Garde) 패션을 창출한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 개념의 재해석에서 나타나며, 내면의 욕망에 대한 인간의 요구뿐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 문화, 정치 등에 대한 인간의 재조명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각예술의 표현방식과 전시영역을 확장하여 새로운 다층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패션 분야의 신체에 대한 탐구가 더 이상 패션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신체와 상호작용하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다중 감각의 차원으로도 확장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라는 미학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예술 이론과 패션 문화를 접목시키며, 이를 통해 신체와 의상의 상관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고 패션을 재해석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플라톤(Platon) 시기부터 들뢰지(Gilles Deleuze)까지 철학적 언어 환경에서의 신체미학의 발전과정을 소급하여, 이를 들뢰즈의 신체미학의 연구 배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 국내외 논문, 단행본, 전문저서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론'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기관 없는 신체'의 특징과 분류를 정리하였다. 이에 바탕으로 패션디자인에 내포된 각기 다른 신체 표현 방법과 표현 효과 및 미학적 특성을 재분석하였다.

들뢰즈의 철학 이론 체계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와 그 특성을 면밀히 탐구하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기관 없는 신체와 강도의 특성을 분석하여 1보로 구성하였으며, 현대 패션 분야에서의 기관 없는 신체의 응용과 구현에 관한 실질적 분석 및 예시 대해서는 본 연구의 2보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 2.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

### 2.1 '기관 없는 신체'의 개념과 전개

예로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을 항상 의식(영혼, 주체)과 신체(육체, 객체)의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 중 의식과 신체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몸은 영혼의 무덤'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격언처럼 일찍이 플라톤(Platon,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약 BC427-347)은 대화편에서 이데아(Idea)는 불멸하는 것이자 사물과 현상계의 저편에 있는 본질적인 것이고 현상적 존재의 근거이고, 육체는 현상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육체는 그 수명이 다하면 소멸하지만, 영혼은 소멸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것은 단지 현상계의 육신과 이데아에 속하는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일

따름이며, 죽음에 이르러서야 정신이 해방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신체를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금욕주의에 위배되며, 기독교 교의에서 원죄의 상징이 되는 것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유가 팽배하였다.

근대 유럽의 계몽주의 시기가 되면서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는 심신 이원론(mind-matter dualism), 즉 마음과 신체를 두 개의 다른 구역으로 나누어 사유(思惟)와 연장(延長)의 실체적 구별의 관점에서 현상을 받아들였다. 이는 인간에 적용되어 신체에서 분리하여 존재하는 혼의 불멸을 논증한다. 한편, 데카르트는 심신의 합일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혼과 신체가 서로 작용하는가 하는 물음(심신문제; mind-body problem)을 남겼다[3].

데카르트 이후 대표적인 철학자인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주체절이나 헤겔(Hegel, 1770-1831)의 '실체는 주체다'도 신체는 크게 중시되지 않았다.

이후 후기 현대 철학의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체에 대한 철학자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앙리 베르그손(Henri Bergson, 1859-1941)은 심신 이원론의 한계를 깨고 신체 자체를 인정하려 했고,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프랑스의 철학자, 1908-1961)는 신체의 지각현상학(Phenomenology of perception, 프랑스어 원문: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을 구축하였다. 리처드 슈스터맨(Richard Shusterman, 미국 철학자, 1948-)은 '신체미학(Somaesthetics)'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니체(Nietzsche, Friedrich Wilhelm, 1844-1900)는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의 생존의지론(Survival Will)에서 출발했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권력 의지(will to power)' 학설을 창안하여, '인간에 있어서 신체는 소유의 객관적 방식이 아니라 존재의 주체적 방식이라는 논리를 피력하였다.'라고 하였다[4]. 또한, 니체는 기독교의 극단적인 내세주의에 반대하여 '정신이나 사랑보다는 육체, 본능, 생명을 중시하라고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니체 사상이 철저히 현실주의적 사고로부터 기인함을 의미한다[5].'고 하였다. 니체는 철학사상 최초로 '신체'의 기초적 지위를 확립하려는 최초의 철학자로 볼 수 있는데, 들뢰즈는 니체의 계승자로서 신체의 에너지에 관한 니체의 사상을 답습하고 발전시켰다. 상기와 같은 신체론의 내용을 다음의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1. The development of body theories

Representative person	Body theories
Platon (약 BC427-347)	The soul is independent of the soma(body).
Christian period-Middle Ages (476-1453)	The body becomes a symbol of original sin.
René Descartes (1596-1650)	Put forward the mind-matter dualism, which Separate the mind and body into two different fields.
Immanuel Kant (1724-1804)	First to make a radical distinction between two kinds of self-consciousness: consciousness of ourselves as subjects and consciousness of ourselves as objects.
Hegel (1770-1831)	The spirit defines matter, and the body is a manifestation of itself produced by the soul and cannot exist independently.
Nietzsche, Friedrich Wilhelm (1844-1900)	Starting from the will to power, it is clarified that human existence is the coexistence of 'spiritualized body' and 'hysicalized spirit'.
Henri Bergson (1859-1941)	Breaking the limits of mind-matter dualism and recognizing the body itself.
Maurice Merleau-Ponty (1908-1961)	Propose 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Richard Shusterman (1948~)	The concept of 'Somaesthetics' was first proposed.
Gilles Deleuze (1925-1995)	Developed the theory of Body without Organs.

한편, 들뢰즈는 세계가 힘과 힘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니체의 관점을 받아들여, 신체는 세계의 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물질의 실체와 구체화를 통해 신체 내부에 잠재해 있는 능력을 더욱 명확히 하고[6], '사물 자체가 힘이며, 힘의 표현이다[7].'라고 하였다. 또한, 이에 바탕으로 '욕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들뢰즈는 생명을 욕망으로, 욕망은 생명을 창조와 개조를 통한 확장으로 보았다[8]. 다른 말해 욕망은 무의식적인 신체 연결과 생산에 의해 항상 흐르고 신체에 따라 다른 연결 방식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안티-오이디푸스'(Anti-Oedipus)에서 욕망의 내면적 종합은 세 가지 논리합에 의해 수행되며, 각각은 연결(connexion), 이접(disjonction), 및 연결(conjonction)이다. 이런 이론의 토대 위에서, 들뢰즈는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9]. 그 결과, 들뢰즈는 신체의 욕망도 생산적이며, 사회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것은 '욕망 기계'라고 생각하였다[10]. 이렇게 들뢰즈는 욕망(Desire), 기계(Machine), 생산(Production) 등의 개념을 신체에 도입해 창조적으로 '기관 없는 신체'(Body without organs, 약칭 BWO)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실 '기관 없는 신체'의 개념은 들뢰즈가 최초로 언급한 것이 아니고, 프랑스의 전위 연극 거장 앙토냉 아르토(Antonin Artaud, 1896-1948)에게서 처음 제창되었다. 아르토는 '신체는 신체이다. 이들은 결코 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기체는 신체의 적이다'라고 하는 기관 없는 신체 개념을 차용하였다[11, 12]. 아르토는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적어 내려간 시(詩)에서 근본적으로 신체란 미분절된(inarticulé) 상태이며, 강렬한 에너지만이 흐른다고 표현했다[13]. 들뢰즈는 알토의 말을 인용하여 기관 없는 신체를 논증하고, 이를 자신의 신체 미학의 중심 사상으로 전환하며, 신체의 각 기관 사이의 내재적 관련을 재검토하고, 신체를 돌파하고 유기체의 조직으로서 신체를 하나의 강도 현실로 추상화 하였다.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는 그 신체미학의 중요한 개념이자 은유(메타포: metaphor)다. 먼저, 기관 없는 신체와 마주하는 것은 기관이 아니라 유기 조직이 기관에 대해 하는 조직이다[14]. 기관 없는 신체란 조직화 유기체화 되기 이전의 모든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로 들뢰즈는 막 부화하고 있는 알의 내부 상태에 비유하고 있다[15]. 즉, 기관 없는 신체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체가 더 이상 기관, 유기체의 속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는 전통 관념의 제약에서 벗어난 하나의 자유로운 무기체로서의 몸이다. 이에 기관 없는 신체는 가장 순수한 신체로 볼 수 있고 기관은 몸에서 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신체는 여전히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여기서, 신체는 더 이상 생리학적 의미의 기관으로 구성되지 않고 철학과 미학적 의미의 비유적 명사에 가깝다. 또한, 기관 없는 신체는 일정한 조직이 없는 신체를 의미한다. 즉, 기관 없는 신체는 단순히 기관이 없는 신체가 아니라 더 이상 특정한 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나아가 역동적 과정에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생겨난 특정한 기관이나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보다 폭넓은 변용의 역량을 가진 신체이다[16]. 기관 없는 신체에 관통하는 이러한 변용의 역량은 리비도(libido)와 같은 에너지로 능동적이고 생산적 의의가 있으며, 끊임없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와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의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 전개되기 때문에 한 새로운 방식으로 신체를 재현(representation)할 수 있다.

## 2.2 '기관 없는 신체'와 강도

니체의 영향으로, 들뢰즈는 신체가 다양한 힘(force)

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신체가 기관을 분포시키는 유기체가 아니라 욕망에 충실하고, 형태 없이 자신의 특징으로 공간을 채우고,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하면 몸은 속박에서 벗어나 기관 없는 신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강도(intensity)만 신체 안에서 통과와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도에 의해 신체가 점유되거나 배치되고 신체의 힘이 되살아난다[17]. 강도는 원래 물체가 외력에 저항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들뢰즈는 강도를 기관 없는 신체의 역치(閾值)를 가리키는데 사용하며, 최적 강도는 '0' 이라고 하였다. 또한, 들뢰즈는 강도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천 개의 고원'에서 들뢰즈는 기관 없는 신체를 알에 비유하며(The BWO is the egg)[18]. '알'(egg, 프랑스어: l'œuf)의 개념을 창조하였다. 여기서 알은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연속적인 욕망이 흐르고 있는 장소이다[19]. 들뢰즈는 이 알을 아직 부활되지 않은 '강도 = 0'라고 말한다[20]. 기관 없는 신체는 유기체에 인접해 있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만들어낸다[21]. 즉, 들뢰즈가 보기에 모든 속박된 기체 조직이 제거된 이후에 기관 없는 신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들뢰즈는 신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빼버리고 신체를 하나의 생산적인 힘과 욕망으로 추상화하였다. 들뢰즈의 관점에서, 세계는 서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에 의해 구성되며, 여러 다른 힘의 상호연계 및 상호작용의 이면에 있는 바로 생명의 자기증진과 자기실현의 욕망이 있었다.

강도의 정도에 따라 강약이 생기며, 강도의 전개 방식에 따라 신체는 세 개의 선(line)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램 분자선(molar line, 프랑스어: molaire), 분자선(molecular line, 프랑스어: moleculaire) 및 탈출선(line of flight, 프랑스어: la ligne de glissement). 여기서 선은 보이는 선이나 유형적인 특정한 선이 아니라 일종의 생성 상태를 의미하며, 인류의 생존 방식이나 사회 제도의 형태를 형용하는 것이었다[22]. 이 중 그램 분자선은 '엄격한 분할선(rigid segmentary line)'이라고도 불리며, 전통 철학의 의미로 폐쇄적이고 빈틈 없는 유기체의 신체에 대응한다. 그램 분자선에서 신체는 규정되고 코딩(coding)된, 욕망의 확실한 표현이다. 분자선은 그램 분자선을 바탕으로 개인화, 즉 사적화 하는 단계에 대응하고, 이 단계의 신체는 끊어진 힘을 보이며 이원 대립의 등급 시스템을 깨고 기관 없는 신체로 향할 수 있었다. 단 분자선은 전통과 신생의 단절지대에 있어 오락가락하고 불철저하기 때문에 발전은 예측 불가능하다. 분자선의 기초 위에 탈출선이 생기는데, 탈출선은 들뢰즈가 중점적

으로 논의한 선이자 결국 기관 없는 신체로 가는 선이기도 하다. 이 탈출선은 반 영토화(territorialization)되고 반 본질적이며 반 코딩된 단계에 대응한다. 이 단계에서 신체와 기관은 모든 구속을 풀고 더 이상 국가, 권력, 혹은 기계의 코딩을 받지 않으며, 이로써 기관 없는 신체가 최종 자유 상태로 나아가는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의 미학은 강도의 미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것은 억압된 욕망을 풀어내고, 탈 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푸는 데 필수적인 탈출선을 창조하며, 사람을 진정한 인간 자신이 되게 할 수 있다.

## 2.3 '기관 없는 신체'의 특징과 분류

들뢰즈에 따르면 기관 없는 신체는 그 강도에 따라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full body without organs)와 '텅빈 기관 없는 신체'(empty body without organs) 그리고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cancerous body without organs)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2.3.1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란 욕망과 강 밀도들의 흐름의 연속체이며 다양한 잠재성을 향해 열려있는 신체로서 충만함과 평안함으로 가득 찬 신체를 말한다[23].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는 이상적인 신체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탈출선은 적절한 강도를 관통하여 적절한 능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때의 신체는 건강하고 생동하고 강력하게 유통되는 플랫폼으로 동시에 완전히 디코딩(decoding)된, 즉 해독된 신체이다. 이러한 신체를 논증하기 위해 들뢰즈는 그림의 예를 들었다. 예를 들어 화가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영국 화가, 1775-1851년)의 작품 중 특히 풍경화에서 일종의 미완성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바다, 배, 암초 등의 심상에는 신비한 기운이 감돌고, 이로써 터너의 작품들은 사실주의의 명료함과 윤곽함 대신 이미 해독된 강도를 갖추고 있었다. Fig. 1

이러한 신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들뢰즈는 '감각의 논리(logic of sensation)'에서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영국 화가, 1909-1992년)의 작품을 기관 없는 신체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베이컨의 작품에서 비로소 기관 없는 신체가 구체적으로 운용되고 설명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베이컨의 회화 작품에서는, 형체가 극도의 긴장과 강한 장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 Snow Storm, Steam Boat off a Harbour's Mouth  
(Source:[https://www.sohu.com/a/231760097\\_256050](https://www.sohu.com/a/231760097_256050))

이에 유기적인 일체의 조화, 통일과 규범의 힘을 무너뜨렸으며, 끊임없이 경련하고 틀어지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 같았다[24]. 들뢰즈는 이것이 기관 없는 신체가 보여 주는 내면적 감각과 외부적 힘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어느 정도에서 베이컨의 모든 작품들은 어떤 신경질, 즉, 병리학적인 혹은 히스테리(hysteria)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들뢰즈는 회화의 본질이 히스테리라고 말하였다. 베이컨의 작품은 풍만한 기관 없는 신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히스테리는 정신분열자(Schizophrenia)의 상태로 볼 수 있다. Fig. 2



Fig. 2. Study after Velazquez's Portrait of Pope Innocent X, 1953  
(Source:[http://sd.ifeng.com/jining/pinjianshoucang/detail\\_2014\\_11/12/3141258\\_0.shtml](http://sd.ifeng.com/jining/pinjianshoucang/detail_2014_11/12/3141258_0.shtml))

들뢰즈와 가타리는 그 이론인 '정신분열 분석학'에서 욕망을 작용하는 욕망과 반작용적인 욕구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작용하는 욕망의 지배하에 있는 기관 없는 신체는 바로 정신분열자이고, 그들은 기존의 시간과 정세에 대해 주류 사상이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소수파에 속하며, 세속, 환경과 규제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들 중 몇몇은 혁명가와 역사 발전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표현하기 때문에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가 될 수 있다[25].

다시 말해, 이러한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는 충분한 기동성, 적응성, 창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모든 속박과 질곡에서 벗어났고, 정신세계의 상태는 완벽에 가깝다. 따라서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유기조직(organism), 표징성(ignificance), 주체성(subjectivity)의 겹겹이 포위에서 사람을 풀어주어 신체를 구속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체는 자아를 잃고 '무아(無我)' 또는 '초자아(超自我)'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2.3.2 '텅 빈 기관 없는 신체'

'텅 빈 기관 없는 신체'란 약물중독 된 신체, 편집증적 신체, 히포콘드리아적(hypochondria) 신체, 분열적 신체로서 다가오는 이웃 항들에게 나누어줄 것도 없고 이웃 항들의 이질성을 담아내고 수용할 폭이 극소화된 신체로서 탈 기관화에 멈춘 신체를 의미 한다[26]. 욕망은 신체에서 강도의 유통을 실현하지만, 그 강도가 적절한 범위를 넘을 때 신체가 과도한 강도에 의해 파멸되는 경우가 있다. 텅 빈 기관 없는 신체는 우울증의 신체와 마조히즘(masochism)의 신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공허하고 텅 빈 신체를 가진 그것들의 신체는 과도한 강도에 의해 삼켜졌고, 탈출선에서 통제 가능한 궤도에서 떨어져 죽어갈 수 있다. 들뢰즈는 오스트리아 작가 레오폴트 폰 자허마조흐(Leopold Ritter von Sacher-Masoch, 1836-1895년)의 '모피를 입은 비너스(Venus in furs)'에서 신체가 학대를 받는 면을 발견하였다.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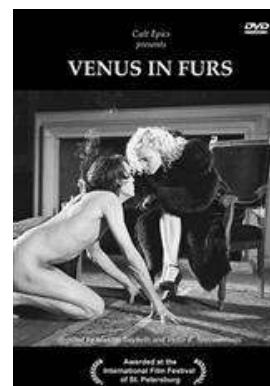


Fig. 3. Venus in Furs, 1994 (A film based on the novel of the same name)  
(Source:<https://baike.baidu.com/item/毛皮里的维纳斯/20163603>)

들뢰즈는 여러 차례 자허마조흐의 텍스트를 본보기로 SM에서 학대를 받는 쪽의 신체에 대해 논했고, 들뢰즈가 보기에 마조히즘(masochism) 신체는 욕신의 측면에서만 기관을 비우기 때문에 일관성 평면(plane of consistency)에서 방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기관 없는 신체임에 틀림없다. 이에 탈출선에 있는 기관 없는 신체의 운동이 자유의 해방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초과하기 때문에 텅 비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들뢰즈는 신체의 해방 과정에서 적당한 유기체, 의미와 해석, 주체성을 보유해서 그것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시스템에 반항할 수 있게 한다[27]. 이를 '정신분열 분석학'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반작용 욕구의 지배하에 있는 기관 없는 신체는 편집광이고, 그들은 항상 기존의 사건과 정세에 대해 주류 사상이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이는 다수파에 속한다. 그들은 세속적인 환경의 산물로서 지배적인 계급의 이익을 차지하는 충실한 지지자이자 옹호자로, 집단의 욕망도 이들의 욕망이다. 그들은 자신의 사상이 없거나 어떤 원인에 처하여 자신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텅 빈 기관 없는 신체가 되었다[28]. 다시 말하면 텅 빈 기관 없는 신체에서 욕망 속의 긍정적인 정신기관은 불능화 되고, 그 정신세계는 이미 바깥세상에 완전히 좌우되며,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그 정신세계의 주요한 특징이 되었다[29].

### 2.3.3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 1930-1992)는 유기체라고 불리는 기관들의 조직화에 대립되는 기관 없는 신체뿐만 아니라, 유기체에 속하는 유기체의 기관 없는 신체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가 바로 그것이다[30].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란 파시즘적 조직으로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이웃항들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면서 파괴능력을 키워나가는 신체를 말한다[31]. 즉, 이런 상황에서 욕망은 파시즘 국가 지배계급의 욕망이 다른 욕망을 억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간주되고, 이것은 국가 기계가 이미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가 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욕망에 의해 지배되며 구동되고 있다. 독재자에 의해 발현되는 이러한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는 기호들의 움직임을 봉쇄하여 기관 없는 신체위에서 기표작용과는 무관한 기호가 탄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32]. 따라서 이러한 신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 차별 없는 평균주의를 끊임없이 생산하게 한다. 동시에, 그것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결국 자신을 인멸시키거나, 스스로가

인멸할 수 있는 힘을 생산하게 될 수 있다. 욕망의 작용에 의해,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의 부정적인 정신 기관은 이미 돌연변이를 일으켜 들뢰즈의 철학적 시각 아래 암적인 상태에 들어섰다.

## 3.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기관 없는 신체의 특징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는 신체의 각 감각 사이의 내재적 연관성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였고, 유기체로서의 신체의 활동 경계와 기관 사이의 고착된 구조와의 연관성을 풀어내었다. 결국 기관 없는 신체는 자유, 욕망 및 강도의 신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조직화와 규범화가 필요 없는 신체이기 때문에 심미적 자유와 의미의 신체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는 조형 예술 창작과 조형 형태 혁신의 의미 및 형식의 생성을 재인식하기 위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신체는 서양 철학 연구의 주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서양 예술사에서 지극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이탈리아 예술가, 1475~1564) 밑에서 긴장한 몸을 가진 다윗뿐 아니라 앙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es, 프랑스 화가, 1780-1867)의 그림 속 부드럽고 아름다운 젊은 여자이고 신체는 예술가들에게 풍부한 영감을 제공하였다. 들뢰즈가 제시한 기관 없는 신체 이론은 현대 조형 디자인의 혁신적인 표현 방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전통 예술에서 작가들이 인물의 신체를 묘사하거나 나타내는 것보다 현대 예술에서의 신체는 더 직접적인 모티브나 수단, 매개체로 더 많이 사용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즉, 예술가의 사회, 정치, 문화 등에 대한 인문적인 사고를 신체에 녹여내고, 예술가 본인의 몸체, 몸의 운용이나 몸의 감각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기도 한다.

패션 디자인은 인간의 몸을 매개체로 한 예술 장르이다. 현대 패션 분야의 패션 디자이너들의 신체에 탐구도 더 이상 과거의 의상처럼 의상의 비율, 조화에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물화된 몸을 추구하지 않으며, 더 이상 신체에 대한 외부의 평판 기준에 의존하지 않는다. 즉, 신체에 대한 보다 다원화된 전시로 확장하고, 기호의 속박을 넘어선 추상적인 의상에 대한 탐구하여, 옷의 기하학적 형태와 피부 사이에 존재한 공간 속성을 담긴 신체를 해방시켰다.



### 3.1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

'옷차림'은 인간이 몸을 가공하는 행위의 일종이다. 복장은 복잡한 변형작용을 하여 신체 표면에서 다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복장은 인간의 자기 신체에 대한 감지를 강화시킨다. 사람의 동작 하나하나가 옷과 몸의 마찰을 일으키고, 몸에 적당한 자극을 주면 사람들은 촉각을 통해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신체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33].

복장에는 양면이 있는데, 밖으로 드러난 면은 옷의 앞면으로 볼 수 있고, 몸을 접촉하는 면은 옷의 이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외 질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의복의 내부는 자아의 내부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자아와 외계의 경계로 볼 수 있다.

현대 패션계에서는 해체주의의 영향으로 속옷을 겉에 입고, 셔츠나 티셔츠를 반대로 뒤집어 있기도 하며, Fig. 4처럼 재봉실을 밖으로 나오게 하여 실밥과 안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게 안팎으로 공간구조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 기능의 해체와 재구축으로 볼 수 있으며 감각 기관 배치의 전환과 함께 신체 운용과 왜곡하는 과정에서 신체 성능의 환경 자체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는 강도와 속도의 과정을 전화하고, 즉,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신체를 재배치하여 신체의 구석구석이 감각 기관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 신체는 알 수 있는 해독한(decode) 강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를 형성할 수 있다.



Fig. 4. Clustering Beauty, 1998 S/S Comme des Garçons (Source: Rei Kawakubo/Comme des Garçons: Art of the in-between.)



Fig. 5. PLEATS PLEASE ISSEY MIYAKE 2014 S/S (Source: [https://m.sohu.com/a/211085206\\_526692/?pvid=000115\\_3w\\_a](https://m.sohu.com/a/211085206_526692/?pvid=000115_3w_a))

이렇게 현대 패션 예술에서는 몸의 내외 환경이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몸의 표면에 갈피갈피 쌓인 주름을 형

성함으로써 몸의 또 다른 한 종류 감각과 형태를 창작할 수 있었다. 디자이너들은 무색, 무장식, 비대칭, 미완성, 오버사이즈 등 전통적인 서양 패션 디자인 원칙을 뛰어넘는 수법을 통해 복장 구조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몸은 언제나 운동중이고, 이런 운동은 인간의 존재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Fig. 5 그의 디자인은 항상 미완성 상태를 만들고 있고 옷의 형태가 몸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도록 하고, 최종적인 의상 모양은 옷을 입을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착용 상태에서 사람, 즉 착장자는 옷을 매개로 자신의 몸과 대화를 시작했고 몸의 가장 근본적이며 원시적인 느낌을 일깨웠다. 또한, 그의 복장은 매우 추상적이며, 모든 제식 차원의 물건을 제거하였고, 예컨대 나이, 지위, 국적 등, 서양의 복식 구조 질서를 리셋(reset)하며 현대 패션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다시 말해, 착장자를 유기적 조직과 주체적 질서로부터 해방시키고 몸을 구속 없이 자유분방하게 하여, 충만한 유연성과 끊임없이 방출되는 뉴 타입(new type)의 공간미와 신체미를 창출하며,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를 이루고 있다.

### 3.2 '텅 빈 기관 없는 신체'

복장은 인간의 제 2의 피부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정신분석학자 레모네 루치오니(Eugénie Lemoine Luccioni)는 옷은 입고 벗을 수 있는 피부라고 말한 바 있다[34]. 인간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감지할 수 없고, 단지 기관들의 일시적인 도착을 통해 산발적인 토막들을 감지하고, 상상을 통해 이 토막들을 조합하여 상대적인 전체로 만든다. 자신의 몸을 더 충분히 감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주 보디페인팅(body painting), 문신, 피어(piercing) 등과 같은 방식으로 부분적인 자아 이탈을 함으로써 더 강한 육체적 감지를 얻기도 한다. 이런 갈망은 옷 속에서 옷감을 찢고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상의나 바지의 단추를 아무렇게나 매고 옷고름을 흐트러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찢고 찢음으로써 육체에 대한 괴롭힘과 구속을 상징한다. 디자이너들은 종종 원단의 2차 창조를 통해 신체의 균열, 단층, 상처, 구멍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끊임없이 신체를 침범하는 허상을 만들어 낸다. Fig. 6-7 그리고 지금 가장 유행하는 날씬한 몸매를 갖기 위해 급진적인 방법으로 살을 빼는 것, 결국 유행을 쫓기 위해 자신의 몸을 해쳐가며 섭식장애에 걸리는 것, 몸에 문신을 하거나 피어싱을 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조히즘 같은 이런 신체 이미지는 해방 과정에서 지나친 초과로 텅 빈 기관 없는 신체이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패션 디자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체 모델은 들뢰즈의 텅 빈 기관 없는 신체를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인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의 고도 표준화와 얼굴 표정의 부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감정과 개성을 지각하기 어렵고, 그것들로 연결된 시간이 얼어붙어, 공허하고 결여되어 있으며 아무런 의지 없는 세상의 산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정신세계는 완전히 외부세계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어 왔으며, 이러한 신체는 또한 기능화 제거된 텅 빈 기관 없는 신체로 간주될 수 있다.



Fig. 6. holes 1982/83 F/W Comme des Garçons  
(Source: Rei Kawakubo/Comme des Garçons: Art of the in-between)



Fig. 7. 1994 Nihilism Alexander McQueen  
(Source: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

### 3.3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

인류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운데 의상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와 인간사상의 전환을 시시각각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보편화된 제복은 직장인의 양복이든, 학생의 교복이든, 운동선수의 경기 의복이든, 경찰의 제복은 시대의 사고를 반영한다. 제복은 처음에는 지배계급의 화려한 의상에 맞서는 자유의 상징으로 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받았다. 그것은 자유로운 복장으로 계급의 차이를 없애고 개인이 독립된 개체임을 깨닫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즉, 제복은 규칙과 질서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 오히려 통일된 유니폼이나 제복이 개인의 특질과 개성을 흐리게 하여 '관박이'라고 일컬어지는 통일과 몰개성의 상징이 되었다. 이에 제복은 바로 '마이너스 가치'의 대표 격이 되었다. Fig. 8의 모델은 온통 간호사 제복 차림에 얼굴이 가려져 있고, 개인의 얼굴과 특징은 통일된 제복을 통해 상징적 의미로 대체되었다. 이에 제복 아래의 몸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끊임




없이 생산되는 무차별적인 평균주의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들뢰즈 철학의 언어 환경에서의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로 볼 수 있다.

상기 연구를 바탕으로 한 들뢰즈의 신체미학, 즉 기관 없는 신체의 분류와 그 미학적 의미와 의복에 담긴 표현은 다음의 Table 2에 같이 정리되어 있다.



Fig. 8. Louis Vuitton 2008 S/S  
Source: <https://baijiahao.baidu.com/s?id=1635672266096065577&wfr=spider&for=pc>

Table 2. Aesthetic features and costume expression of Deleuze's body without organs

Classification of body	Aesthetic significance of the body	Performance in clothing
Full body without organs 	Fully decoded, flowing with appropriate intensity, active, free and plentiful mature body	1. The abstraction, transformation or deconstruction of clothing and body 2.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and body in space and time 3. Dehumanization and focus on the clothing itself
Empty body without organs 	Over-decoded, over-consumed by excessive intensity, passive, masochistic hollowed out body	1. Modify clothing fabrics to simulate physical aggression 2. Willness mannequins
Cancerous body without organs 	Fascist, controlled, submissive, passive, absolute equalitarianism, undifferentiated body	Uniform clothing that eliminates individual traits and personality, such as school uniforms, suits, and race attire

#### 4. 결론

기관 없는 신체는 들뢰즈의 신체 미학의 핵심 사상으로 신체 각 감각 기관 사이의 내재적 연관성을 재검토하여 유기체로서의 신체의 활동 한계를 돌파하고 신체를 하나의 감각적 힘과 강도로 추상화하였다. 기관 없는 신체를 시각 창조로 하여 현대의 패션과 결합함으로써 디자이너들은 비이성적인 신체 감각과 이상적 사고 사이에서 끊임없는 창작 영감을 얻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의 기본 개념, 어원 및 특징을 분류하여 정리하고, 그 신체 미학에 내재된 표현의 형식과 특징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을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는 다양한 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분한 에너지만 있으면 신체는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의 기관 없는 신체를 형성할 수 있다.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는 강도에 따라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와 '텅 빈 기관 없는 신체' 그리고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현대의 패션예술에서 디자이너는 복장의 착용방식과 창조적인 디자인 기법을 변화시킴으로써 복장과 신체의 교류 가능성을 조성하여,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신체를 전무후무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신체를 유기적인 조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를 형성하였다.

셋째, 텅 빈 기관 없는 신체 상태에서, 사람들은 복장을 신체의 상징으로 여긴다. 그들은 옷을 훼손하고 찢거나 상처를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신체에 대한 괴롭힘을 대신하고, 신체가 과도한 강도로 파멸된 상징이다. 또한 의지가 없는 인체 모델에서도 정신상실의 텅 빈 기관 없는 신체로 간주될 수 있다.

넷째,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인 의미의 평균주의 생산역량이다. 현대 사회에서 통일성과 무차별성을 상징하는 제복은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의 대표로 볼 수 있다.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와 패션의 분석과 해독을 통해, 우리가 접하는 패션은 기관 없는 신체의 감지와 운동의 결과이며, 기관 없는 신체의 전개와 방출을 가능하게 한다. 기관 없는 신체론은 철학, 패션 예술과 사회문화 사이의 가교를 구축할 수 있다.

앞서 연구의 방법 및 범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들뢰즈는 철학 이론 체계가 방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관 없는 신체와 강도만을 분석하였으며, 현대 패션 분야

에서의 기관 없는 신체의 응용과 구현과 들뢰즈의 철학적 언어 환경 속에서의 현대 패션의 발전과 구현은 본 연구자의 후속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의 연구가 현대 패션 디자인에 담긴 신체 미학연구에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

#### REFERENCES

- [1] Y. Liu. (2013). The Influence of Deleuze's philosophy on contemporary plastic arts. *Journal of Northeast Agricultural University (Social Science Edition)*, 11(04), 56-60.
- [2] Y. H. Jiang. (2007). *Deleuze's somaesthetics research*. Shanghai: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Press. 2.
- [3]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2002). *Mindbody dualism*. Academia Research (Online).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8461&cid=42140&categoryId=42140>
- [4] S. S. Jang. (2007). A Study on Nietzsche's View of Body. Philosophy of Movement.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15(04), 1-17.
- [5] J. H. Lee. (2005). The Sport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Nietzsche's Thought.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4(3), 89-99.
- [6] C. Zhang. (2014). Several Cases of Contemporary Body Art—From Tino Sehgal. *Art Observation*, -(04), 135-144.
- [7] G. Deleuze. (1962). *Nietzsche et la philosophie*. Paris: PUF .7.
- [8] D. G. Cheng. (2009). *Nomadic thinking and nomadic political experiment—research on Deleuze's postmodern philosophy*. Beijing: China Social Sciences Press. 9.
- [9] M. Todd. (2005). *Gilles Deleuze: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 [10] G. Deleuze & F. Guattari. (1983). *Anti-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sota: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11] G. Deleuze. Q. Dong translate. (2017). *Francis Bacon - logique de la sensation*. Guang Xi: Guangxin Normal University Press Group. 59-60 Cited from Antonin Artaud. 'The body is the body'.
- [12] H. Y. Yang & M. H. Lee. (2010). A Critical Study ab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ody without Organ and Blurring Boundary Fashion—Focusing on Philosophical and Sociological Discourses about the Body and the Desir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8(05), 824-841.
- [13] C. W. Lee. (2017). Le Concept de Corps Chez Deleuze—le monstre Innocent—. *Korean Philosophical*

- Association, 0(130)*, 127-153.  
DOI: 10.18694/KJP.2017.02.130.127
- [14] G. Deleuze. Q. Dong translate. (2017). *Francis Bacon - logique de la sensation*. Guang Xi: Guangxin Normal University Press Group. 60.
- [15] G. Deleuze & F. Guattari. J. I. Kim translate. (2001).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 nie 2*. Seoul: Saemulgyeol.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16] K. J. Cho. (1993). Body, Rebellion, and Power, EPOCH AND PHILOSOPH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4(3)*, 183-196.
- [17] G. Deleuze & F. Guattari.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sota: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89.
- [18] G. Deleuze & F. Guattari.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sota: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19] Y. H. Jin. (2014). *Development and effect of improvisional dance program based on Deleuze's physical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Youngin.
- [20] S. C. Shin. (2003). Analysis of body-desire theory by Deleuze and Gattari: <Thousand plateaus> "How to make the Body Without Organs. Master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 [21] J. A. Lee. (2004). *Investigation into the new direc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terms of actualizing a context-focused on Deleuze Guattari's 'corps sans organes'-*. Master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22] Z. Li & Z. H. Zhong. (2019). Body without organs: On the Formation of Deleuze's Somaesthetics. *Literary and artistic contention, -(04)*, 98-109.
- [23] J. K. Lee. (2002). *Nomadism1,2*. Seoul: Humanist Publishing Group.
- [24] Y. Z. Geng. (2006). How to Face Painting—Taking Deleuze's View on Bacon as an Example. *Literature & Art Studies. -(04)*, 116-124.
- [25] W. Hou. (2016). 'The Samurai I Loved' from the perspective of body without organs. *Mangzhong Literature, 000(008)*, 108-115.  
DOI: 10.3969/j.issn.1003-9309.2016.16.017
- [26] J. K. Lee. (2002). *Nomadism1,2*. Seoul: Humanist Publishing Group.
- [27] X. Y. Hu. (2012). *Deleuze difference philosophy and aesthetic research*. Doctoral dissertation. Fudan University, Shanghai.
- [28] W. Hou. (2016). 'The Samurai I Loved' from the perspective of body without organs. *Mangzhong Literature, 000(008)*, 108-115.  
DOI: 10.3969/j.issn.1003-9309.2016.16.017
- [29] F. Sun & Y. J. Kang. (2017). Haste Makes Waste—A Study of Alice Munro's *Soon* from the Perspective of Body without Organs. *The World Literature Criticism. -(03)*, 41-45.
- [30] J. A. Lee. (2004). *Investigation into the new direc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terms of actualizing a context-focused on Deleuze Guattari's 'corps sans organes'-*. Master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31] J. K. Lee. (2002). *Nomadism1,2*. Seoul: Humanist Publishing Group.
- [32] J. A. Lee. (2004). *Investigation into the new direc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terms of actualizing a context-focused on Deleuze Guattari's 'corps sans organes'-*. Master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33] K. Washida. J. S. Wu translate. (2018). *Weird body-what is fashion?* Chongqing: Chongqing University Press. 19.
- [34] K. Washida. Y. B. Cao translate. (2018). *Phenomenology of clothes*. Beijing: New Star Press. 147.

왕 형 우(Wang Xin-yu) [장학원]



- 2011년 7월 : Beijing Institute of Fashion Technology (패션디자인학 학사)
- 2012년 9월 : Birmingham City University (패션디자인학 석사)
- 2013년 11월 ~ 현재 : Qingdao University of Technology 조교수
- 2018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패션디자인, 패션미학, 패션 마케팅, 패션 교육과 디자인
- E-Mail : wang\_gabrielle@163.com

김 현 주(Kim Hyun-joo) [장학원]



- 200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복식디자인(디자인학 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복식디자인(디자인학 석사)
- 2005년 2월 ~ 2017년 9월 : Harriette Kim Co., Ltd. 대표(디자인·경영팀)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디자인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부교수, 단국대학교 부설 융합디자인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패션디자인, 패션미학, 글로벌패션비즈니스, 융합 디자인
- E-Mail : hyunjookim@dankook.ac.kr